메트로 2014년 2월 20일 목요일 제2918호 www.metroseoul.co.kr

삼성 '갤럭시S5' LG 'G프로 미니' 첫선…SKT·KT 등 이통3사는 진일보한 네트워크 기술 자랑

세상 뒤집을 신기술 전격 공개

세계 최대 정보통신 행사 MWC 2014' 24일 막올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행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글로벌 IT기업들은 전략 기술을 공개하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MWC는 '다음 세대를 창조하라(Creating What's Next)'를 주제로 전 세계 1800여 기업, 7만5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전시 및 각종 콘퍼런스에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참가 업체들은 ▲신기술 상용화 로드맵 ▲기술 제휴 ▲기술 컨설팅 계약 등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진행한다.

우선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5를 공개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8시(현지시간) 공개되는 갤럭시S5는 'MWC 2014'의 최대 화제작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미 각종 외신을 비롯,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갤럭시S5의 예상 스펙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추측되고 있는 갤럭시S5의 스펙은 5.2인치 초고해상도(QHD) 디스플레이에 엑시노트6 또는 스냅드래곤805 프로세서, 3기가바이트(GB) 램,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지문인식 기능 등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개되는 갤럭시S5를 이르면 다음달 말께 시장에 출시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내에서 'G프로2'를 공개한 LG전자는 'MWC 2014'에서 'G프로 미니'와 'L시리즈Ⅲ'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G프로 미니는 4.7인치 디스플레이에 스냅드래곤 800 프로세서, 2GB 램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3G 스마트폰 라인업인 L시리즈의 경우 'L40', 'L70', 'L90' 등 3종이 공개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한 단계 앞선 네트워크 기술을 자랑한다.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조소텔 기지국인 펨토셀에서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연결 대역처럼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묶음기술(CA)'을 브로드컴(Broadcom)사와 함께 시연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CA 기술은 서로 떨어진 10MHz의 2개 통신 주파수 대역을 연결해 최대 150Mbps까지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올해 하반기 중 상용망 연동을 통해 2015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광대역 주파수 묶음 기술을 활용한 '광대역 LTE-A'와 이종망 결합 기술인 '광대역 LTE-A 헷넷(Het Net)' 등 최첨단 네트워크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일 광대역 LTE-A는 광대역 주파수 20MHz 대역 3개를 묶어 최대 450Mbps 속도를 자랑한다. 이는 기존 LTE 대비 6배, LTE-A 대비 3배 빠른 셈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A와 기가 와이파이를 접목하는 이종망 결합 기술인 '광대역 LTE-A 헷넷'도 전시한다. 이 기술은 이론상 최대 600Mbps 속도를 자랑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국내에서 시연한 3개 LTE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 최대 300Mbps 속도를 제공하는 '3밴드 CA' 기술을 발표한다. 또한 통화와 동시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유와(Uwa)', 디지털 가전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홈보이(homeBoy)' 등을 선보이는 한편 얼굴인식 솔루션을 적용한 타깃 광고 플랫폼 '미러미디어(Mirror Media)'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세형기자 (y…@metroseoul.co.kr)

60년을 그리워한 동생 오늘 만난다니 꿈은 아니지?

60년 넘게 기다려온 남북 이산가족 1명의 꿈이 20일 마침내 가족과 상봉한다. 19일 오후 속초에 집결한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83명은 동반 가족 61명과 손꼽으로 방북 자세했다. 최고령자는 김성윤(96) 할머니가 동생들과 조카를 만날 생각에 설레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상봉단에 미지막으로 合류한 김섬경(91) 할아버지는 북한의 두고온 아들과 딸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수액을 맞으면서 구급차에 실려 도착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남측 대상자들은 20~22일 북한 금강산에서 1차 상봉을 가진다. 이어 23~25일 2차 상봉에 나서는 북측 상봉 대상자 88명이 남한 가족들 372명과 만난다. /연합뉴스

더 알찬 정보와 주요기사 및 상세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여의도 면적 14배 해양영토에 '우리땅 말뚝' 박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관할 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 기점 도서의 간조 노출지를 측정하고,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 홍도, 거서, 형도 등 5개 영해 기점 도서의 정확한 간조 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집밀위지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염분 관측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 노출지에도 영해 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 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 기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사후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불법 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 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하는 어선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 항만, 국내 항만을 연계하는 복합 물류망 구축에 나서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 항로 상용화에 대비키로 했다.

/유주영기자 boa@

군 정치관여 땐 엄벌한다

국방부, 9개 항목 '정치 중립 행동수칙' 하달 · 사이버심리전 상시 감독

사이버사령관 국방위 출석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19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 후속 조치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을 제정해 전군에 하달했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세부행동기준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설립된 연구소나 동우회 등의 가입도 금지됐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기고문·논문·서적 등을 발표할 수 없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거기간에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임과 특별한 사유 없는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 목적 행사도 참석해서는 안 되며 정치인의 부대 방문은 선거 기간에는 불가능해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군 통수권자 비방 ▲정치 현안 관련 찬성 반대글 게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불리한 기사 메모 및 댓글 작성 등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 밖에 상관으로부터 정치운동을 지시받으면 계통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 거부,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군 형법에 반영해 정치관여죄의 처벌 조항을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논란 의혹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키로 했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쌍용차 막는 '불신의 벽'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쌍용차 회계조작 논란을 지켜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간극'을 또 한 번 마주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쌍용차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조작 여부를 조사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객관적 감정인으로 내세운 서울대 교수 역시 합리적인 회계였다고 해명하는 것과 달리 조작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쌍용차와 회계법인이 2008년 회계에 부실을 부풀려 반영해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정당화했다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계법인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공장·설비 등 유형자산의 가치에서 신차 효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그렇게 '억측'하게 들리진 않는다.

월급쟁이들도 월급이 나오지 않거나 삭감되면 가장 먼저 씀씀이부터 재점검한다. 앞으로 받을 상여금 등 보너스를 미리 '받을 것'으로 간주하고 소비하는 실수를 범하진 않는다.

그런데 쌍용차의 회계감사에서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신차들의 가치를 포함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해 보인다.

증권업계에서 '신차 효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실적 전망치를 올리기도 하지만 이는 추정의 영역에 불과하다.

쌍용차 문제를 초래한 외국의 먹튀 자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타당성이 부족한 문제에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길에서 쌍용차 신차를 더 많이 보게 되길 희망한다.

리조트 사고 현장 감식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 감식팀원이 경북 경주의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철도 개·보수 무상지원 검토

정부가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에 매년 130억여 원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 관련 예산과 사업 규모는 남북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진전되면 (남북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현재로선 이에 대비해 개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무상 지원액을 1년에 136억4500만원으로 잡고 있다.

개·보수 대상은 북한 평산과 세포, 고원, 나진을 연결하는 720여km 구간으로서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동쪽 철로다.

또 정부는 4~5년간 매해 136억여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융자금 등 형태로도 매해 141억38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 대화가 물꼬를 튼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준기자

경주 리조트 사망학생 유족들 코오롱그룹과 보상 조기합의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과 리조트 소유자인 코오롱그룹의 보상 협상이 마무리됐다.

19일 오전 코오롱 관계자는 분향소가 마련된 울산 21세기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유족과 만나 보상 협상을 최종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구체적인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판수 유족 대표는 "조금씩 양보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들 딸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합의했다"며 "코오롱 측에서도 사과했고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박 대통령 최측근 경호 수행부장 교체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 수행부장을 최근 교체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 시점부터 박 대통령을 경호해온 수행부장이 지난달 말 경호실 정기인사에서 전보 조치되고, 다른 부서장이 수행부장을 맡게 됐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당선인 시절부터 퇴임 때까지 옆기 내내 그림자 경호를 하는 경우가 많아 1년 만에 조기 교체는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수행부장 교체를 두고 청와대 외전 부서와의 갈등 끝에 사실상 경질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경호실은 "갈등설이나 비활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 역량을 키우고 조직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기존 수행부장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뉴스 & 뉴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후보자는 18일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였고, 여야 의원들도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보고서 채택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명신 장군 표지석 베트남전 당시 초대 주월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의 표지석 제막식이 19일 오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뉴시스

영창 다녀와도 군복무 기간 안 늘도록 법개정

●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군 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 기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 처분 일수도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30층 이상 초고층 빌딩 공사장 안전 관리실태 직접 점검하기로

'제2롯데' 5월 개장 무산

지난 16일 새벽 발생한 잠실 제2롯데월드 화재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초고층 빌딩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는 시공사 및 책임감리단에서 공사장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지난해 6월 제2롯데월드 43층 자동상승발판거푸집 추락, 10월 저층부 철제 파이프 추락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직접 관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시는 초고층 관련 학회, 단체 등 전문기관들과 협의해 이번주 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건소시업 방식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나, 안전진단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롯데월드 측과 협의를 완료했다.

안전 점검은 가설물, 안전시설, 공사장비, 소방, 방화, 전기, 가스 등 종합적으로 시행된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제 롯데월드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초고층 타워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 시내 30층 이상 초고층 빌딩 공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러 차례 사고가 났는데 이제 와서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23층 초고층 공사는 처음이라 초고층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의 사례 등도 참고해 초고층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개장을 추진해왔던 제2롯데월드는 서울시와의 안전관리 점검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조기 개장은 어렵게 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친구야 또 만나자" 19일 서울 광진구 구의3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집 졸업식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뉴시스

동네 대기질 스마트폰 체크

수돗물 수질검사 무료로

다음달부터 가정집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상반기 중 스마트폰으로 동네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4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지난해 26차례로, 전년 3회보다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을 현재 1~2종에서 12월부터는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대기관리권역에 포천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형 경유차에 올 1월부터 적용한 유럽연합 배출 기준은 9월부터 소형 경유차에도 적용된다. 초미세먼지(PM 2.5)와 오존 사범예보제는 5월부터 시행된다.

3월부터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은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시행된다.

기피 시설인 매립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내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4월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김민준기자

'소 핫(so hot)' 소치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구온난화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가정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이집트 테러' 피해자들 치료 제대로 못받아

어제 15명 1차 귀국

이집트에서 폭탄테러를 당한 충북 진천 중앙 장로교회 신도들의 부상이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탄 테러 사고수습반으로 이집트에 도착한 진천군의 임병소 팀장은 19일 "부상자를 직접 보니 국내에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김동환 목사는 발가락을 절단한 채 양다리를 깁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상자들은 다리에 파편 여러 개가 깊이 박혀있는데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아직도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로 수술이 불가피하다. 또 상당수 부상자가 다리뼈에 금이 가는 등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 팀장은 "현지 병원의 심한 열악해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 국내에서 치료를 받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신도 15명은 터키항공 TK090편을 이용해 이날 오후 5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민준기자

권익위 "공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로 낮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2000cc급으로 낮추는 등의 공용차량 운용 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거 권고했던 내용 외에도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개선안도 추가했다.

우선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를 2000cc급 이하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용 차량을 임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선배차제도 없애도록 했다.

또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차량운전보조비 지급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 /장다혜기자

금천 어울샘 '빈 벽 프로젝트'

서울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창작공간 '금천미음예술창작소 어울샘'은 다양한 문화와 창작물을 교류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빈 벽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빈 벽 프로젝트는 전시 공간이 필요한 지역 주민(작가 및 개인 단체)에게 어울샘의 빈 벽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프로젝트다.

'어린이집 식재료 조례' 제정

서울시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납품업체 급식 재료 품질관리, 납품업체와 기사를 대상으로 주기적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급식 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여행작가 과정' 수강생 모집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은 2014학년도 1학기 '여행작가·플래너 양성 과정' 수강생을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두 강의 모두 15주 과정으로 여행작가 양성 과정은 여행기사 작성 방법을, 여행 플래너 양성 과정은 여행 관광업 관련 전문 지식에서부터 패키지 투어 상품 개발 및 여행 스케줄 구성 방법 등을 지도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특성화 전문대학' 키운다

5년간 1조5000억원 84개 대학에 지원…중소·중견기업 인력 매년 15만명 양성

앞으로 5년간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1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2017년까지 특성화 전문대학 84개교가 지정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2963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을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전문 직업 인력을 매년 15만 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특성화 전문대학을 70개교 전정하고, 2017년까지 84개교로 확대해 학교당 3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특성화 전문대학은 입학 정원의 70% 이상을 주력 계열 1곳에 집중한 '단일 산업분야 중심'(27개교), 주력 계열이 2곳인 '복합 산업분야 중심'(47개교), 고등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특성화'(10개교)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매년 특성화 전문대학의 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가감하고, 2년 후에 중간 평가를 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전문대학은 탈락시킬 계획이다.

또 기업체 재직자, 퇴직자, 이직자 등이 자유롭게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대학'도 육성한다. 올해 8개교, 내년에 8개교 등 16개교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지정해 학교당 5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대 학생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올해 15개 사업단 등 앞으로 5년간 20개 사업단, 3000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yth@metroseoul.co.kr

겨울바다에서도 '올라프'가 대세 폭설이 그친 19일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 백사장에서 관광객들이 눈사람을 만든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휴무 동안 강원도 영동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북동 산간과 경북 동해안에 많은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운전 중 내비 켜기만 해도 단속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 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간 경찰이 19일 단속 기준을 담은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상영 만화 등을 봐도 단속된다.

그러나 신호 대기로 잠시 지랑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차종별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애완견 물려 죽었다면 정신적 손해도 배상"

애완견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남의 불법 행위로 애완견이 죽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지법은 19일 김모(54)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가 반려견 죽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 구입가를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가 이씨의 진돗개에 물려 죽자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뿐 아니라 반려견이 죽으면서 얻게 된 정신적 피해(100만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다혜기자

입학식 전 복장부터 19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서 열린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식에서 한 지도생도가 신입생도의 매무새를 정리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유리병 음료속 유릿가루 주의

삼키는 사고 1년에 90건

유리병 음료에 들어간 유리 이물질을 함께 마시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런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 이물이 혼입된 위해 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해 사례 중 유리 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70.5%(91건)에 달했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29.5%(38건)였다.

실제 이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가운데 유리 이물 섭취로 엑스레이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고,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 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으로 확인됐다.

또 유리 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용기 내부에서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시중에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의 포장 상태를 조사한 결과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성일기자 jsi.ms@

난치성질환 호흡재활센터 지원 협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9일 서울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호흡재활센터 사업지원 협약식'과 호흡재활센터 환우 대학 졸업 및 입학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병석(왼쪽) 원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 등이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 투병 중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쾌감 느끼려 일부러 상습절도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길음동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총 1320만원 상당의 브랜드 의류를 훔친 혐의로 주부 박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절도 전과 2범인 박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로 주말 오후 백화점이 붐비는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옷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몰래 숨겨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남편과의 이혼소송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물건을 훔칠 때의 쾌감 때문에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코이카, 볼리비아 원주민마을 지하수 뚫는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남미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주의 원주민 마을인 '몬테베르데'에서 관개용 지하수 개발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19일 코이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몬테베르데 마을의 계획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착공식에는 정중희 코이카 볼리비아 사무소장을 비롯해 만리오 로카 산타크루스 주정부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사무국장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다혜기자

우크라 최악 유혈사태 … 20여명 사망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내에서 우크라이나 민중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져 시위대가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자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은 화염과 연기에 둘러싸이기도 했다(왼쪽).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시위 중 가장 격렬했던 이 날 시위로 경찰 6명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숨졌다(오른쪽). 그러나 이날 오후 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압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뒤 총격이 오가면서 경찰은 다시금 시위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19일까지 이어진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경찰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끝까지 저항했지만 사망자수는 늘어나 악순환을 알렸다. /키예프=AFP 연합뉴스

美 공화당 '공공의 적' 된 오바마

"오바마 케어·NSA 도청·행정명령 권한 남용 … 탄핵도 불사하겠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 사냥'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새 건강보험제도와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의혹 등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미 CBS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론 존슨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공화당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 등을 문제 삼아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슨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게왕적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그는 헌법을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에게 고삐를 잡아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도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가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강행하길 원한다면 미국 의회가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스톡먼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권 발동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또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랜드 폴 상원의원은 NSA 도청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폴 의원은 2006년부터 시작된 NSA의 통화 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미국민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앞두고 의도적 죽이기

이와 관련,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죽이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올 연말 치러지는 중간선거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눈오는 날은 치맥" 전지현 한 마디에 중국 튀김닭 불티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튀김 닭 판매가 껑충 뛰었다.

드라마 대사에 치맥(치킨과 맥주의 줄임말)이 등장한 뒤 이를 찾는 사람들이 는 것.

1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중국에서 닭고기 수요가 줄었지만 '별그대' 드라마 주인공인 전지현의 "눈 오는 날에는 치맥"이라는 대사 때문에 최근 튀김 닭 소비가 급증했다.

항저우의 일본 식당 체인점은 발렌타인데이 기간에 생선회가 아닌 '치맥' 세트를 판매, 수천 세트의 치맥을 팔았다고 밝혔다.

상하이에서도 한국식 치킨 가게가 드라마 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튀김 닭을 사려면 3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한다. 후난성 창사에서는 여덟 끼 연속 식사를 튀김 닭으로 한 여성도 나왔다.

한 냉동 닭 날개 공급업체는 뜻하지 않은 '별그대 특수'에 닭 날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동해/일본해 병기 확산 속 독도/다케시마 병기 등장

미국에서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 표기를 '독도/다케시마(Dokdo/Takeshima)'로 병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및 미·일 관계 현안 보고서에 동해가 'Sea of Japan(East Sea)'이라고 적힌 지도가 실렸다. 그러나 CRS 보고서는 우리가 실효 지배 중인 독도의 이름도 'Dokdo/Takeshima islets'로 병기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2일 발간된 미·일관계 보고서는 독도를 'Liancourt Rocks(Takeshima/Dokdo islets)'로 표기하며 일본 측이 주장하는 명칭을 앞세우기도 했다.

CRS 보고서는 미 행정부의 정책 입안과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일본해/동해' 병기 문제를 크게 이슈화할 경우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며 치밀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

미 국민인형 바비 "취직했어요"

원피스 정장에 스마트폰 … 최근 직장여성 버전 출시

미국 '국민인형' 바비의 눈부신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풍당당' 시대상을 반영한 '직장 여성' 바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바비인형 제작사 매텔은 이번주 장난감 박람회에서 직장여성 바비를 새로 선보였다.

직장 여성 바비는 분홍색 원피스 정장에 검은색 핸드백을 들고 있으며 태블릿 PC와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다. 화려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이다.

올해는 바비가 세상에 나온지 55년째 되는 해다. 과거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금발 바비 인형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직업·인종의 바비인형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흑인 바비와 중남미계 바비 인형도 어린 소녀들에게 인기가 높다.

미국 언론은 바비 인형이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출시된 직장 여성 바비는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앞서 나온 여행사 직원이나 패션 디자이너 바비보다 직장 여성의 전문적인 분위기와 모습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전일>

뉴스 & 뉴스

공시우수 코스닥사 6곳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슈프리마, 코텍, 비덱,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글과컴퓨터 등 6개사를 2013년도 코스닥 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했다고 한국거래소가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들 회사는 불성실 공시가 없거나 공정 공시의 기업설명회(IR) 개최 수가 많아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캔디 크러시…' 11조 가치

웹·스마트폰용 퍼즐게임 '캔디 크러시 사가' 개발업체의 기업 가치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해당 게임 개발업체인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하 킹)는 최근 뉴욕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

킹은 아직 공모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기자

연금복권520 제138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1조	883106
		7조	322236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100532
4등	100만원	각조	73563
5등	2만원	각조	262
6등	2000원	각조	12 94
7등	1000원	각조	6, 8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7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규로
사원·편집인	김종후
편집국장	조인로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9
부산광고문의	051)553 2100
독자센터	02)721 9361

2003년 1월 31일 창간 등록 서울특별시 가00091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입법청문회장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사장들이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에서 권헌준(원)택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안 단장의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사장, 김상득 KCB 대표, 전 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대표, 박상훈 롯데카드 대표. /연합뉴스

허진수 부회장 '사과 모르쇠'

기름유출사고 관련 책임회피 행태 '부도덕'

Issue & View GS칼텍스 '여수 포주속' 논란

/김태균기자 kkg@metroseoul.co.kr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이 대표로 취임한 지 15개월가량 흘렀다. 지난 2012년 12월 취임 당시 그에게 거는 기대는 컸다. 28년간 정유영업·생산·석유화학분야를 모두 거치며 신신부터 영업·재무까지 전 분야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GS칼텍스에서 허 부회장만큼 생산·영업 등 모든 분야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평가가 취임 당시 나왔다. 그만큼 GS칼텍스의 부진한 영업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했다.

그러나 1년여 흘쩍 지난 지금 허 부회장에게 남은 성적표는 초라할 뿐이다. 영업 부진에 신용등급 하락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기에 여수 기름유출 사고 이 관련, 부도덕한 행태가 논란이 되며 곳매를 맞고 있다.

◆업계 최고 성과 창출하지…국제 신용등급 하락

허 부회장은 지난해 초 "2012년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실적도 부진했다"며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또 같은 해 신년사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위기를 넘어 일상화됐고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면서도 '업계 최고의 성과 창출'이라는 도전적인 경영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GS칼텍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45조6598억원, 영업이익은 9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4.6%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76%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지난 2011년 2조원의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4분기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 순손실이 1831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적인 신용도 하락하고 있다. 최근 무디스가 GS칼텍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Baa2'에서 'Baa3'로 한 단계 내렸다. 이는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 달성…여수 기름유출 도덕성 논란

악화된 영업 실적에도 허 부회장은 올해 건재함을 드러내며 GS칼텍스가 에너지는 물론 화학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기업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전략적 대응 ▲공정운영 최적화와 에너지 효율화 ▲세일즈 채널 쇄신 ▲소통과 실행 중심의 조직문화 강화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 달성 등을 실현해달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공언마저 불과 한 달을 가지 못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수습 과정에서 GS칼텍스의 책임 회피 논란과 부도덕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에 정부가 나서 GS칼텍스도 1차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그 뒤에 숨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던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경질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사고 후 11일이 지나서야 언론에만 사과문을 게재했다. 허 부회장이 직접 여수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과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간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소탈한 성격이라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토록 중시하는 소통의 모습도 없었다.

특히 허 부회장의 이런 태도는 최근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태와 경주리조트 사태에서 보여준 관련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의 사과 모습과도 대비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우리파이낸셜·우리자산운용 매각 곧 타결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중 2개 계열사의 매각 협상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파이낸셜, 우리자산운용의 매각 협상이 합의에 이르러 조만간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그룹이,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자산운용이 지난해 말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바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파이낸셜과 자산운용의 가격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이르면 이번주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두 회사의 매매 가격은 입찰가로 제시된 3000억원과 900억원 안팎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20일, KB금융은 21일 각각 열리는 이사회에서 매매계약을 확정하고, 주식 매매계약을 맺는다.

나머지 6개 계열사는 우투증권 패키지에 포함된 우투증권·저축은행·생명보험과 우리F&I, 경남은행·광주은행 등이다.

우투증권 패키지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인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7일 우리금융에 보낸 '가격조정 제안서'에서 패키지 내 3개 계열사의 매수 가격을 애초 제시했던 입찰가보다 큰 폭으로 깎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예비실사 때 보지 못한 지분와 여투 달라진 자무 상태를 중점 점검해 조정 요인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ini@

전세가격 치솟고 매매가 덜 오른곳 반전세 전환 급증

전세가가 높고 집값 상승폭이 낮은 지역에서 반전세(보증부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내놓은 '보증부 월세 가구 증가 지역의 특성' 보고서에서 최근 전세 가구의 반전세 전환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셋값이 비싸거나 매매가 상승폭이 낮은 지역에서 반전세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6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지역별 주택 점유 형태 자료를 활용,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반전세 거주 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는 감소한 반면 반전세는 크게 증가했다. 자가 거주 가구 비율이 증가한 곳은 66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도 과천, 이천, 포천, 양주, 동두천 등 8개 지역에 그쳤다.

하지만 반전세 거주 가구는 경기도 화성·이천·포천·양주·동두천 등 5개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늘었다.

연구원은 반전세 가구 비율이 급증한 지역의 특징으로 ▲2005년 기준으로 자가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중이 더 높고 ▲주택 공급 증가로 1000명당 주택 수가 늘고 ▲5년간 주택 매매가 증가폭이 낮고 ▲2010년 기준으로 전세가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박선호기자 npc@

STX조선해양 채권단 1조8000억 추가 지원

채권단이 STX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조8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19일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의한 STX조선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채권단 동의 비율이 75%를 넘어 가결됐다.

STX조선해양의 의결권 비율은 34.6%로 산업은행이 가장 많으며 수출입은행이 20.8%, 농협은행이 17%, 우리은행이 7.3% 가지고 있다. 추가 자금 지원과 함께 1조3000억원의 출자전환도 이뤄진다.

채권단의 총 지원 규모는 이미 결의된 2조7000억원을 포함해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총 출자전환 규모는 지난해 결의한 7000억원을 포함하면 2조원 수준이다.

채권단은 추가 자금 지원 후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원가구조 개선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이라크서 6조4400억 공사 수주

현대건설 GS건설 등 4개사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 건설사가 이라크에서 6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GS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이라크 석유부 산하 석유 프로젝트 공사가 발주한 60억4000만달러(약 6조4400억원)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사는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업체 4개사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공사를 따냈다.

이번에 따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120km 카르발라 지역에 하루 14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정제해 액화석유가스(LPG)와 가솔린, 디젤 등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정유 설비를 짓는 프로젝트다.

설계·구매·시공·시운전을 총괄하는 일괄 턴키 형태로 시공하며 완공 후 1년간 운전 및 유지 관리도 맡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 현장 위치도.

/박선옥기자

차보험료 4년만에 인상

4월부터 중소형 손보사 중심 2~3% 오를 전망

자동차보험료가 오는 4월부터 중소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2~3%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2010년 3% 올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19일 금융권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와 더케이손해보험은 이 같은 방안을 보험개발원에서 검증받고 금융 당국과 추진을 조율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들 온라인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율의 산출 방식 등이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에 육박한다.

지난해(4~12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손해율이 95.8%로 업계에서 가장 높았고 더케이손해보험(94.2%), AXA다이렉트(90.8%)가 뒤따랐다.

흥국화재(94.8%), 한화손해보험(93.7%), 롯데손해보험(90.2%) 등 중소형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인 77.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손보업계들은 지난 2010년 자동차보험료를 3% 인상한 뒤에는 2011년부터 줄곧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소폭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온라인 손보사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비슷해 1개사가 올리거나 내리면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그동안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던 대형 손보사가 움직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적자 규모가 너무 커져 다른 부분으로 메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4년여간 동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자동차보험 비중이 대부분인 온라인 손보사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인상을 허용하지만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생각하는 보험료 인상폭 상한은 2~3% 선이며 이마저도 경영난이 심각한 온라인·중소형 보험사에 한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당국에서는 그보다 자동차보험료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계획을 밝혔다.

/김민정기자 kim1@metroseoul.co.kr

"데릴하우스가 궁금해"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경향 하우징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데릴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단기외채 비중 1999년 이후 최저수준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외 채무 잔액은 4166억 달러로 2012년보다 72억 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단기 외채는 1128억 달러로, 143억 달러 줄면서 전체 대외채무 중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사이 31.1%에서 27.1%로 감소했다.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 1999년(29.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기 외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9월 말 51.9%에 달했지만 지난해 6월 말(29.4%) 20%대로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외화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단기 외채는 줄고, 외국인 채권 투자의 영향으로 장기 외채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금융공기업들 수장 공석… 이래도 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주택금융 코스콤 인사 "늑장"

일부 금융 공기업들의 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늑장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후임자 인선 작업이 길어지면서 인사 파행과 사업계획 차질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등의 수장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후임 행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용환 행장이 지난 6일 퇴임했다. 그러나 차기 행장에 대해선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은 차기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전직 기획재정부 차관보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현재 이들춘 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장이 떠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후임 인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주택금융공사도 지난달 16일 서종대 전 사장이 자진 사퇴한 후 사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어있다.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 사장 자리 역시 지난 11월 이후 공석이다.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장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사업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인사 결정을 해줄 사람이 없어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미착공 PF 대출' 줄이자

건설업계 "지체할수록 금융비용 손실" · 연내 분양 계획 줄이어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업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PF대출의 특성상 시간을 지체할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착공 PF 손실로 작년 4분기 44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대우건설이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미착공 PF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우 개선도 힘들다는 판단 아래, 오랜 기간 미뤄온 사업장들의 분양을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착공 PF 사업장 12곳, 대출 잔액 1조5000억원에 이르는 GS건설은 올해 6곳을 착공 사업장으로 전환, 절반에 가까운 7000억여 원의 대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평택 동삭 아파트 사업 1754억원을 비롯해 ▲김포 한강 센트럴 자이 16개억원 ▲일산 식사2지구 1440억원 ▲오산 부산동 지구 1100억원 ▲화성 반월동 730억원 ▲천안 와그자이 500억원 등이다.

GS건설에 이어 미착공 PF대출 잔액이 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현대건설은 당진 송악 힐스테이트(1724억원)와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977억원) 등을 선완해 약 2700억원의 대출액을 축소한다.

또 미착공 PF로 인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대우건설은 ▲왕수신도시 푸르지오 400억원 ▲평택 용죽 프로젝트 1200억원 ▲천안 성성 푸르지오 1100억원 ▲김포풍무 2지 4000억원(1지 포함)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미착공 PF 사업장의 착공 전환에 따른 대출 부담 감소와는 별개로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부담했던 금융비용이 워낙 컸던 탓에 사업을 해도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것.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착공 PF 착공으로 건설사별로 800억~1000억원 수준의 비용 처리가 예상된다"며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수익성은 저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 분양되는 사업장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져 미분양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 침체로 사업을 미룬 프로젝트도 있지만 사업성 자체가 없어 분양을 못 한 곳들도 있다"며 "착공 전환은 되더라도 대규모 미분양 발생으로 여전히 자금 부담이 클 수 있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김포 센트럴 자이, 식사2지구 자이, 김포 풍무 2차 등은 쉽지 않은 현장임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들어간 이자 비용 때문에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도 어려워 간신히 회복된 김포, 고양 일대 분위기가 또다시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석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위례 엠코타운 특별공급 청약접수 최근 주택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하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2차 엠코타운 센트로엘 견본주택에서 수요자들이 특별 공급분에 대한 청약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화 상대 얼굴 터치하세요 SK텔레콤은 삼성 갤럭시 노트3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T전화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휴대전화에서는 전화를 누르면 숫자로 이루진 키패드가 나타나지만 T전화에선 이러한 전형적인 화면 대신 평소 자주 통화하는 12명의 얼굴이 아이콘 형태로 등장한다. /SKT 제공

금소원 7월 출범 못할수도

관련 법안 처리 늑장에 8000억 설립비용 부담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늑장 법안 처리와 설립 비용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소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정보 유출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탄력을 받았던 금소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소원 설치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소원을 만들고 금융위를 위에 두는 안을 추진 중인 반면, 야당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포함시키고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금융위는 대통령의 정책 안 중 하나인 금소원 신설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소원 설립을 위한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이 추산한 비용은 대략 7000억~80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금소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정이 녹록지 않아 어려울 수도 있다"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진 금융사들의 과도한 부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철한기자 [illegible]

한국경제 서비스업 비중 OECD서 최하위

21개국 평균 59.4%에 크게 못미치는 40.3%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1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이 경상가격 총공급액 기준으로 작성한 '2010 기준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지난 2010년 한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총 공급액은 4639조7000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1.6배 늘었다. 총 공급액은 국내 전체 산출액에 수입을 더한 것으로, 경제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2010년 총 공급액 중 국내 산출액은 83.7%, 수입은 16.3%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국내 산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은 2005년 45.2%에서 2010년 49.0%로 상승했지만, 서비스업의 비중은 42.3%에서 40.3%로 떨어졌다.

한국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40.3%)은 OECD의 부가가치 기준 상위 21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OECD 평균인 59.4%에도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제조업 비중(49.0%)은 OECD 상위 21개국 중 1위다. 제조업이 활발한 편인 독일(34.0%), 터키(32.7%), 멕시코(32.3%), 일본(32.0%)을 웃돈다.

이 밖에 정보통신, 금융 등 생산자서비스업 비중(15.9%)은 OECD 평균(22.7%)에 미달했다.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사회서비스업 비중(9.2%)도 OECD 평균(13.6%)을 하회했다.

/정윤아기자 [illegible]

국내 기업결합 건수 급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 결합이 전년보다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3년 기업 결합 신고 및 심사 동향'에 따르면 공정위가 접수한 기업 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2012년 651건에 비해 10.1% 줄었다.

기업 결합 신고 건수는 2009년 413건, 2010년 499건, 2011년 543건 등으로 기업 결합이 활발했던 2012년을 제외하면 다음해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2009년 150조3000억원에서 2010년 215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1년 104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12년 150조5000억원, 2013년 165조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 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과 결합한 건은 2012년 543건에서 2013년 45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결합한 건수는 2012년 28건에서 2013년 41건으로 증가했고, 외국 기업 간 결합한 신고 건수도 2012년 80건에서 2013년 93건으로 증가했다.

외국 기업 간 인수·합병(M&A) 신고 건수는 2009년 30건, 2010년 53건, 2011년 76건, 2012년 80건, 2013년 93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 결합은 144건으로 2012년 197건보다 26.9% 줄었다. /유주영기자 [illegible]

싱그러운 봄나물 19일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모델들이 봄철 입맛을 살려줄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 품목으로는 겉절이나 밥으로 즐겨 먹는 봄동과 냉이, 달래, 미나리, 취나물 쑥 등이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알바 시급 후한 회사·직종

GS숍에서는 7967원

아르바이트 시급이 가장 후한 기업에 'GS숍'이 꼽혔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 구직 포털 알바몬은 최근 6개월 알바 급여 통계 애플리케이션 '알바비책'의 브랜드별 급여를 조사한 결과 GS숍의 시간당 급여가 7967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이크프라이스가 7738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신라호텔(7101원), 웨스틴 조선호텔(6659원), 맥도날드(6451원), LG유플러스(6323원), SK텔레콤(6289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시급이 가장 높은 브랜드를 찾아보면 패밀리레스토랑에서는 세븐스프링스(6005원), 커피전문점에서는 커피그루나루(5914원), 베이커리·도넛전문점에서는 미스터도넛(5861원)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5871원), 편의점은 세븐일레븐(5649원), 유통점 마트는 NH하나로마트(6164원) 등이 각각 가장 많은 시급을 게시하는 브랜드에 올랐다. /하희철기자

피팅모델 1만3310원

피팅모델이 가장 많은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2013년에 등록된 96개 직종 채용공고 시급을 분석한 결과 피팅모델이 평균 1만331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3년 기준 최저임금 4860원보다 2.7배 많은 금액이다. 시급이 가장 낮은 아이스크림·생과일전문점(5020원)과 비교하면 8290원이나 많다.

피팅모델에 이어 개인 지도·과외 시급이 1만142원으로 2위를 지지했다. 내레이터모델(9522원), 방문학습지(9249원), 보조출연자(8623원) 등도 상위권을 형성했다.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직종은 아이스크림·생과일전문점에 이어 만화방(5021원), 베이커리(5042원), 도서·DVD 대여점(5061원), 독전 전사·관리(5079원) 등이었다.

알바천국이 분석한 전체 96개 직종 평균 시급은 6067원으로 집계됐다. /하희철기자

SKT-LG유플 이번엔 '유선 전쟁'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 편법 우회지원" 주장 놓고 양측 진위 설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세력싸움이 우선통신에서 유선통신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는 19일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막대한 가입자 유지 수수료 및 과다 도매대가 제공으로 유선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법여부와 관련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사 이동통신 인력·자금·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KT가 KTF 우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약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30%나 높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에서는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사업부장 전무는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주목적은 우선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과다한 결합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기 위함"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재판매 제재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서 결합상품 가격과 소비자 요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며 "LG유플러스가 아니면말고 식의 흑색선전으로 경쟁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재판매 가입고객은 증가했지만 전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합한 시장 점유율은 24%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며 "SK텔레콤의 재판매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출혈경쟁과 근거없는 경쟁사 비난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사업자로서 건전한 경쟁으로 고객 편익 제고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산뜻한 봄옷의 유혹 19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봄 코어 레깅스 팬츠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 자체 SPA 브랜드인 데이즈 제품으로 레깅스 팬츠는 1만9800원에, 팬티는 79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직장인 일년 평균 독서량

'부끄러운' 9.8권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2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읽은 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9.8권의 책을 읽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령대별 독서량은 20대 직장인이 평균 9.7권, 30대 직장인 평균 9.6권, 40대 이상의 직장인 평균 10.4권이었다.

읽는 도서의 분야는(복수 선택) 소설(51.2%)과 자기계발서(47.9%)가 주를 이뤘다. 다만 20대는 소설(56.1%), 자기계발(45.6%), 시·에세이(20.6%) 위주로 독서를 하고 있었다. 30대는 자기계발(50.5%), 소설(49.5%), 경제·경영(18.9%) 순이었으며 40대 이상은 자기계발(46.7%), 경제·경영(40.0%), 인문(33.3%) 분야의 책을 주로 읽는다고 답했다.

하루 중 책을 읽는 시간대는 '자투리 시간'(47.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잠들기 전'(41.0%)이 뒤를 이었다. 독서 시간은 평균 30분으로 집계됐다. /정윤희기자 unee@

현대차그룹 시간제 근로자 1000명 채용

경단녀·장년층 우대… 2년후 정규직 전환 검토

현대자동차그룹이 경력단절 여성과 장년층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짝 열었다. 하루 4시간 근무 조건에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며 2년 계약 후에는 정규직 전환도 검토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4개 계열사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1000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현대차 300명, 기아차 200명, 현대모비스 등 부품계열사 100명, 현대건설 등 건설계열사 160명, 현대카드·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 115명 등이다.

모집 부문은 ▲판매 서비스(제품 상담, 서비스콜센터 등) ▲사무 지원(일반 사무, 사서, 어학강사 등) ▲개발 지원(설계 CAD 도면관리 등) ▲특수 직무(간호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등) 등이다. 단 주요 직군인 생산직은 채용 분야에서 제외됐다.

지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취지에 따라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장년층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 기준으로 본인의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의 근무 형태를 제시한다. 고용 형태는 2년 계약직이다. 향후 해당 직무가 시간선택제 방식에 적합한지와 개인별 업무 평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급여는 해당 직무가 받는 월급 임금여를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4대 보험과 복리후생 등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이르면 3월부터 채용을 진행하고 채용 안내와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그룹 홈페이지(www.hyundai.co.kr)와 각사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라영철기자 kreiea@

"KT, 한국 1위 통신사"

KT는 영국의 브랜드 가치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19일(영국 현지시간) 발표한 '2014 통신 브랜드 500위'에서 국내 통신사 중 1위, 전 세계 33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브랜드 파이낸스 발표에 따르면 올해 KT의 브랜드 가치는 약 49억1200만 달러(약 5조2000억원)로 전세계 33위에 올랐으며 이는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이재영기자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FASHION
CINEf
FOXlif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FX

'추락' 소니 '질주' 레노버는 日·中의 거울

Issue&View
IT기업으로 본 양국의 현재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한때 일본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IT기업이었던 소니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주력 사업이었던 PC 부문을 매각한 데 이어 또 다른 간판이었던 TV 사업은 분사하기로 했다. 사람으로 치면 양쪽 팔을 다 자른 셈이다.

지난해 기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본 소니 입장에서 20% 가까웠던 점유율이 3%대로 곤두박질한 PC 사업과 9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TV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중국의 IT기업 레노버는 무명 기업에서 일약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했다.

IBM으로부터 PC 사업을 인수해 잠깐 유명해지는가 했지만 2년 가까이 PC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달 미국의 모토로라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3위 브랜드로 우뚝 섰다.

소니가 양팔을 자르기로 한 것도 스마트폰에 집중하기 위해서인 만큼 두 회사의 경쟁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소니의 노트북 '바이오'(사진)에 환호했던 다수의 소비자들은 레노버의 '씽크패드'가 결국 승자가 된 상황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애플 맥북에어의 원조나 다름없는 바이오의 수려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움, 비교 우위의 성능은 다 사라지고 씽크패드의 단순하고 투박한 외관, 베끼기에 급급했던 제품 사양 등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언제부터인가 일본이 자랑하는 브랜드와 중국이 굳이 자국산이라 내세우지 않았던 브랜드가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다.

즉 중국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처럼 디자인에 신경 쓰고 성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일본 브랜드는 가격만 높게 책정한 채 소비자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로 분류되기 시작한 게 최근인 만큼 중국 기업의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절대 우위에 있었던 일본 브랜드가 앞으로는 비교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고 되레 열세에 놓이는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넛크래커' 한국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저가의 저질 중국, 고가의 고급 일본'이라는 공식은 역사 속에서나 볼 수 있다. 그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만 존재할 뿐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다음달부터 내린다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가 7개월 만에 인하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다음달 유류할증료는 편도 발권일 기준 미주 노선은 154달러에서 144달러로,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148달러에서 138달러로 각각 10달러씩 낮아진다.

이외에도 중동·대양주 노선, 중국 동북아 노선 등도 1~9달러씩 내려간다.

중·단거리 국제선을 운항하는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의 유류할증료는 대형 항공사와 비교해 노선별로 2달러가량 낮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이 기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289.5센트로 한 달 전보다 8.1센트 하락했다.

한편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달과 마찬가지로 1만2100원으로 유지됐다.

/장희원기자 [illegible]

'PS4' 540만대 넘게 팔려

PC, TV 등 주력 분야에서 사실상 이탈한 소니가 가정용 게임기 부문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소니는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4(PS4)'가 전 세계적으로 540만 대 이상 팔렸다고 19일 밝혔다. 22일 일본에서도 이 기기가 시판되면 판매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PS4와 라이벌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원'의 판매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초까지 300만 대가량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가 맞다면 PS4가 엑스박스보다 약 2배 더 팔린 셈이다.

/박성훈기자

'갤럭시3 키즈'에 쏙 빠졌네! 소치 동계올림픽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어린이들을 올림픽 올림픽 파크 스튜디오에 초대해 올림픽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갤럭시 탭 3 키즈를 체험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5년간 개인정보 수집 위반 738곳

과징금·과태료 35억원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 등 개인정보 수집 관련 위반 정보통신 사업자가 73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수집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수집 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구글, EBS, KT, 빅슨 등 738개사(중복 포함)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1억원과 4억원이었다.

이들 사업자가 위반한 내용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보안서버 미설치' 도 주된 위반 사항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이 심심찮게 조용할 만큼 많고 개인정보 유출 및 유용이 우리가 느끼는 위험성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공짜지도 오래되면 '보물지도'?

글로벌 이코노미

수집가 눈독 → 가격 상승 10년새 두배가량 뛰기도

거리에서 받은 공짜 지도 한 장이 10년 뒤 값비싼 '보물지도' 대접을 받으며 팔릴지도 모른다.

스마트폰과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종이 지도가 사라지고 있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오래된 지도와 지구본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증가, '옛날 지도'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런던의 지도 판매업체 '맵 하우스'의 매니저 제시 페이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고 밝혔다.

맵 하우스는 엽서 크기의 소형 지도부터 1665년 제작된 초대형 세계지도까지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판매한다. 소형 지도의 가격은 300~400파운드(약 53만~70만원), 17세기 세계지도의 가격은 약 125만 파운드(약 22억원)다.

페이는 "지난 20년 동안 지도 시장이 많이 변했다"면서 "특히 고지도 등을 투자 대상으로 여겨 구입하는 사람은 물론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도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 수집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층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맵 하우스의 웹 사이트를 가장 많이 찾는 연령대는 25~34세"라고 덧붙였다.

30년 전 거리에서 공짜로 나눠주던 도시 지도의 '몸값'도 올랐다. 과거 런던시의 도시계획 지도는 당시 계층과 빈부 격차 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전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이 같은 지도를 수집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수요가 증가한 덕분에 지난 10년 새 도시 지도를 비롯해 상당수 현대 지도의 가격이 두 배 가량 뛰었다고 페이는 말했다.

지도 전문가인 잘리 세벌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지도는 우리 생활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곳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세벌은 "사람들이 수시로 스마트폰 속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지도의 역사와 변천사 등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도 수집 열풍이 불고 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지도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 수집가들이 특히 눈독을 들이는 지도는 지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의 지도다. 런던, 홍콩,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가 이들이 찾는 '노른자 지도'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인도와 중국의 지도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물론 운이 좋으면 공짜로 장만한 지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횡재를 누릴 수도 있다. 1931년 지하철역에서 공짜로 나눠준 런던 지하철 지도의 10년 전 가격은 300~500파운드(약 53만~88만원)였다. 현재 이 지도는 시장에서 1500파운드(약 265만원)에 팔린다.

/조선미기자 [illegible]

3D 프린팅 '무한조합' 시대로

19일 서울 강남구 미러즈타워에서 모델이 세계 최초의 컬러 복합재료 3D 프린터 '오브젯500 코넥스3'로 만든 의상과 액세서리를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패션 모델이 독특한 옷을 입고 프린터 출시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는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다스베이더를 연상케 하는 차림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 옷을 만든 것은 프린터다. 특히 옷에 부착된 고무와 플라스틱 재질의 뼈와 근육을 형상화한 액세서리는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않은 것이다. 프린터 하나로 다양한 컬러와 재질의 상품을 원스톱으로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

'트리플 젯' 기술 적용 재료·컬러 믹싱 해내는 3D프린터 첫 출시

IT업계는 물론 제조업 전반에 혁명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는 3D프린터가 또 한 단계 진화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 특정 재료 한 가지로만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3D프린터가 다양한 재료를 섞는 것은 물론 각양각색의 컬러를 뽑아낼 수 있게 됐다.

즉 2D 컬러 잉크젯 프린터가 색을 조합해 다양한 컬러를 종이로 출력하듯이 3D프린터도 각각의 재료와 색상을 분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품의 형태나 상태, 디자인 등의 경우의 수가 다양해짐을 의미한다. 결국 개인은 물론 기업도 제품 생산공정은 대폭 줄일 수 있고 물건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첨단 3D 프린팅 시스템 기업 스트라타시스는 업계 최초로 다양한 재료와 컬러를 조합할 수 있는 컬러 복합 재료 3D프린터 '오브젯500 코넥스3'를 19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기본 재료를 분사하는 '트리플 젯' 기술을 이용해 단단하거나 유연한 재료, 투명한 유색 재료, 유색 디지털 재료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무한한 조합의 부품들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다.

또 세 가지 기본 컬러 재료인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을 조합해 수백 가지 색상을 구현토록 한다.

이는 조립이나 도색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작 시간을 단축해주며, 기업에서는 양산 전 제품에 대한 검증과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도와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오브젯500 코넥스3로 시제품을 개발한 미국 자전거 제조사 트렉 바이시클의 마이클 제이글 매니저는 "이 제품이 우리의 제조 방식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신속하고 반복적이며 실제와 유사한 프로토타이핑과 성능 시험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존 공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와 비슷한 부품을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모델을 3D프린터로 직접 컬러로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서현준기자 zen@metroseoul.co.kr

'피겨퀸' 김연아 경기음악 삼성뮤직서 무료 감상을

'소치 동계올림픽'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삼성 뮤직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특별한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삼성 뮤직과 함께 김연아 응원하기' 이벤트에서는 삼성 뮤직 고객 대상으로 김연아 선수 경기 배경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삼성 뮤직 애플리케이션 내 이벤트 페이지에 김연아 선수 응원 댓글을 남긴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겨울왕국' OST 디럭스 에디션 CD 총 30개를 증정한다.

김연아 스페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는 2013~2014 시즌 프로그램 음악 '더 퀸 온 아이스(The Queen on ice)' 3곡을 포함한 2011 시즌 테마곡과 2003년 이후 매 시즌 연기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클래식, '페어리 온 더 아이스(Fairy On The Ice)', 가수 박정현과 함께 직접 불러 화제를 모은 '꿈의 겨울' 등 김연아 선수의 애창곡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또 24일까지 '갤럭시 노트3 올림픽을 노트하다'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삼성 뮤직 무제한 음악 감상 1개월 이용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 뮤직과 함께 김연아 응원해요' 이벤트 사이트(content.samsung.com/music/yuna)와 '갤럭시 노트3 올림픽을 노트하다' 캠페인 사이트(www.samsung.com/sec/sochi2014)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편미균기자 ksam@

한국형 유무선 공유기 '꿈의 속도' 손짓

티피링크 신제품 '아처 C7 2.0'

전 세계 유무선 공유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티피링크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차세대 유무선 공유기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고사양·저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티피링크는 19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아처 C7 2.0'을 선보였다.

기존 C7을 한국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이 제품은 차세대 무선 규격인 IEEE 802.11ac 기술이 적용된 듀얼밴드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다. 덕분에 2.4㎓ 대역에서는 450Mbps(초당 메가비트)까지, 선로 간섭이 적인 5㎓ 대역에서는 1750Mbps까지 무선 인터넷 속도가 나온다.

게다가 단일 칩에서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아처 C7은 CPU, 와이파이 칩, NAT 스위치 칩을 각각 분리해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발열과 성능 저하가 적다.

보안도 뛰어나다. 시중의 공유기 대부분이 사전 보안 설정이 안 된 채 나오는 것과 달리 사전 암호화 기능인 최초 비밀번호를 부여한 덕분이다.

출시 가격은 9만9000원. 이는 기존 C7이 아마존 등에서 17만원대에 팔리는 것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데이비스 왕 티피링크 코리아 사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인터넷 환경을 자랑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뛰어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아처 C7 2.0'을 준비해왔다"며 "이 제품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꿈의 네트워크 속도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애플-테슬라 배터리 기술 제휴

아이폰 충전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19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첨단 배터리 기술 제휴를 논의 중이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필수인 충전용 배터리를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특히 작지만 완충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테슬라는 200㎞가량을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1시간 만에 100%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서성훈기자

USB케이블 내장된 아이폰 케이스 눈길

아이폰 사용자들이 케이블을 따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랩씨(LAB C)는 아이폰 케이스와 케이블을 하나로 묶은 '케이블 케이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케이스에 USB 케이블이 내장돼 있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충전 또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케이블 한쪽 끝을 분리하면 거치대로서의 기능도 제공해 영화 감상이나 게임 등을 즐길 때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면은 매트 퓨(Matt PU)로 코팅 처리해 때가 타거나 벗겨지지 않으며 그립감도 뛰어나다.

한편 랩씨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케이스에 USB를 결합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제품을 선보여 '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네이버 '온라인 인디극장' 오픈

검증된 국산 독립영화를 포털과 모바일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포털 네이버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손잡고 개설한 '온라인 인디극장'이 19일 오픈했다.

한독협은 독립영화계 관계자로 구성된 온라인 인디극장 전문 기획단을 만들고, 매회 주제가 있는 독립영화를 선보인다.

이용자는 네이버 영화에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인디극장 코너를 통해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작품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인디극장에서는 작품 정보와 감독의 연출 의도, 관계자 작품 리뷰 등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가 영화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온라인 인디극장은 1년에 총 8회 진행될 예정으로, 이용자는 꾸준히 다양한 독립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인디극장의 첫 번째 기획전은 '서울독립영화제 2013 스페셜 초이스'로 꾸며진다. /박상훈기자

과메기 옆 대게도 "날 잡아잡수"

구룡포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과메기와 함께 대게 · 오징어, 포항 물회 등 다양한 동해안 수산물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포항시청 제공

동해안 대표 맛 집합!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잔치
돌문어·성게·활어회 등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대게·오징어·문어·성게·과메기 등 동해안 대표 수산물들이 전국의 미식가들을 유혹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북방파제에서 개최되는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잔치'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한번에 사로잡는 다양한 수산물와 참맛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유명하다.

◆ 포항의 명품 맛 죄다 모인다

축제에는 우선 포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포항의 명물 구룡포 과메기가 있다. 포항의 청정 해역에서 갓 잡은 신선한 꽁치나 청어를 겨울철 바깥에 내다 걸어 자연 상태에서 냉동과 해동을 반복한 과메기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포항의 '명미'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메기가 생산되고 있지만 축제에서는 구룡포 과메기의 진정한 맛을 만날 수 있다.

또 축제에서는 과메기와 함께 물회·된장성게·대게 등 음식 자체가 하나의 관광명소 역할을 하는 포항의 '명품 맛'들에 흠뻑 취할 수 있다. 특히 어부들이 젓가락질해 음식을 먹을 새도 없이 비빈 생선과 채소를 뭉쳐 넣고 고추장을 푼 후 시원한 물을 부어 마시는 것에서 유래된 포항 물회는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별미 중의 별미다. 또 속살이 눈같이 희고 속이 꽉 차 있는 구룡포 대게 역시 관광객에게 놓칠 수 없는 맛을 선사한다.

◆싸고 맛있게 즐기는 포항의 맛

축제에서는 이런 포항의 맛을 실컷 즐길 수 있다. 구룡포 대게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현지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며 방파제 주변에 설치된 40여 개의 부스에서는 돌문어와 성게·대게·오징어·꽁치 등 동해안 대표 수산물이 시중 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된다. 게다가 부스에서는 관광객을 위해 직접 활어회를 제공하는데 이 역시 20% 정도 저렴하다.

이와 함께 행사장 건너편 일본 근대문화역사관 거리에는 과거 일본인들이 살았던 가옥과 공원·역사관 등이 새롭게 단장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또 늦겨울인 점을 감안해 축제를 찾은 사람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도 준비된다.

◆명품 축제 만들기 '3대 약속'

축제를 주최한 포항시와 구룡포 수산업협동조합은 대부분의 축제에서 존재하는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축제에서 ▲우수 품질의 제품 판매 ▲바가지 없는 가격 ▲친절 서비스 등을 3대 과제로 내걸었다. /정채윤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날짜 2월 21일~3월 30일
-장소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북방파제
-문의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054)270-2853

우리가 몰랐던 포항의 매력 '고택 투어'

우리의 옛집, 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고 평소 접하기 힘든 고풍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포항에도 여러 곳 있다.

◆매병 패하는 길지 세운 사우정

사우정 고택은 조선 선조 때 부평부사를 지내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농포 정문부 선생이 식솔들의 피란처로 사용했던 집이다. 당시 송(宋)자가 든 지명에서는 왜병이 패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에 정문부 선생이 지명이 송을곡(松乙谷)이었던 이곳에 직접 집을 지은 것이다. 이후 집은 정문부 선생의 손서인 이강에게 양여됐고 이후 사우정을 당호로 정했다고 한다. 고택 안에 있는 사랑채와 사당지, 목조로 된 안채 등은 여전히 역사의 흔적을 머금고 있다.

포항 사우정 고택. /포항시청 제공

◆조선의 향수가 서린 애은당

사우정 고택에 살던 이강의 4남 이덕소의 분가인 애은당 고택은 거북형을 이루는 지형에 맞춰 건물 배치도 거북형으로 이뤄졌다. 또 거북 앞발 위치에는 각각 별당과 방앗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머리 부분에 속하는 앞면에는 잠실이, 꼬리 부분에는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 특히 정면 사랑채와 붙은 대문을 들어서면 5칸의 안채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상류층의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남부지방의 대표적 반가 여주 이씨 고택

여주 이씨 고택은 이언적의 5번째 손자인 오의정 이의택 계열이 17세가 이루 이거해 세거해온 곳이다. ㅡ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 곳간채 등 공간 분리가 명확한 고택으로 창호와 평면 구성 및 건축 기법에서는 19세기의 전통적 수법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체적으로 당시 남부지방 반가로서의 구성 요소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색다른 재미가 있는 고택이다. /황재용기자

구석구석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날짜 2월 28일~3월 2일
-장소 경북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 광장

생동하는 울진!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무료 시식 행사가 진행되며 울진 대게 원조 마을을 찾아가는 요트 체험, 초대형 게살 김밥 만들기, 울진 대게 경매 등의 이색적인 이벤트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또 후포항에서 요트를 타고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무료 선상관광 바다여행도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천안 아우내 봉화제
-날짜 2월 28일
-장소 충남 천안시 유관순 열사기념관 사적관리소 광장

95년 전 독립만세운동의 거사를 알리는 봉화를 올렸던 뜻을 기리어 유관순 열사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축제다. 군악대 공연, 순국자 추모제, 봉화답 점화, 만세 삼창 및 횃불 행진, 불꽃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 독립운동가 탈 만들기, 태극기 탁본 뜨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제주들불축제
-날짜 3월 7~9일
-장소 제주 제주시 새별오름

힐링 인 제주(Healing in Jeju)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970년대 이전의 옛 목축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발전시킨 축제로 다양한 테마가 있는 놀이 마당으로 꾸며진다. 특히 61개나 되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무사 안녕 횃불 대행진, 진톨 놓기 경연, 힐링의 불 나눔 행사, 대형 희망 불씨 점화, 오름 불 놓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학용품 시장 '아빠는 큰손'

초등 입학 자녀 둔 3040 남성들, 아내 대신해 신학기 용품 쇼핑 급증

엄마를 대신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아빠들이 온라인몰에서 관련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최근 한 달간 학용품과 책가방 등 신학기 준비물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특이한 점은 30~40대 남성 고객들의 구입량이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 구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신학기 용품의 구입 비중 역시 남성이 지난해 19%에서 입학 준비 기간인 최근 한 달 동안 23%로 늘어나 자녀들의 신학기 준비물을 직접 챙기는 아빠들이 늘어났다.

3040 남녀 신학기용품 구매량 비교

품목별로는 가위·칼·풀 등 필수 준비물의 경우 30~40대 남성들의 구매량이 전년 대비 23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은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술 준비물 역시 스케치북 210%, 붓·팔레트 230% 등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구매량은 22%와 112% 증가했다. 이밖에 과학·수학·체육 등 기타 학용품 역시 남성들은 지난해에 비해 206% 늘었고 여성은 85%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구입이 더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 연령대 남성들은 학용품뿐 아니라 자녀들 패션에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캐릭터 운동화 판매량이 111% 늘었으며 브랜드 책가방은 77%, 아동용 모자는 23% 판매가 늘었다. 여성 고객들의 구매량은 각각 61%, 50%,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G마켓 리빙레저실 이진영 실장은 "황금돼지띠 특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적이고 자녀 교육에도 관심 많은 30~40대 슈퍼대디들이 자녀들의 신학기 용품을 직접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정기자 zenox@metroseoul.co.kr

호주에서 온 스파클링 와인 '로즈마운트 오' 신동와인은 19일 호주에서 온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 '로즈마운트 오(Rosemount O)'의 코스트코 특가 할인 판매를 기념해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사진 행사를 열었다. 모스카토 품종 100%로 만든 이 와인은 호주 빅토리아 지역의 전설적인 와이너리인 로즈마운트사가 야심차게 선보인 제품으로 6.5%의 낮은 알코올 도수와 달콤하고 풍성한 과일 향이 매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동와인 제공

건강음료시장 '어린이가 王'

편식 자녀 영양 맞추려 주스·녹즙 등 구입 늘자 키즈 겨냥 제품 출시 붐

건강음료 시장에 어린이들이 큰손으로 등장하고 있다.

채소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주스·녹즙 등의 음료로 도움을 받으려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 녹즙, 유아용 주스 등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건강음료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성인 음료와는 차별화된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대상웰라이프는 어린이용 녹즙 카테고리를 구축하고 '콩앤키'와 '튼튼아이 맛있는 녹즙' 등을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기존의 녹즙에 새콤달콤한 과일을 넣어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풀무원녹즙도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케타이드 본'과 해조 칼슘을 함유한 '키즈하이'를 선보이고 있다.

매일유업은 유아용 주스 '맘마밀 요미요미 야채와 과일'을 앞세우고 마케팅에 한창이다. 이 제품은 유기농 당근·단호박·양배추·피망·토마토·시금치 등 8가지 이상 채소와 과일만으로 맛을 낸 유아 음료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까지 획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순수 유기농 과즙으로 만든 유아 주스 '갈아담은 유기농 과일아기꼬야'를 지난해 출시했다. 100% 유기농 과일 이외에 다른 재료는 일절 넣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은 '아기꼬야'를 영유아용 간식 브랜드로 확장할 계획이다.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베베쿡도 채소와 과일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음료 '나뭇잎에 유기농주스'를 선보였다. 합성첨가물이나 설탕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사용해 생후 8개월부터 음용이 가능하다.

초록마을은 국내산 저농약 과일과 유기농 설탕, 과일 농축액만으로 만든 '마칼드리 친환경 주스'를 판매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1544-7755' 코레일관광개발 콜센터 개소

코레일관광개발은 18일 오전 10시 본사 관광레저본부에서 콜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통합 콜센터를 통해 국내·외 관광 상품과 열차 고객 민원, 제휴 등의 모든 문의 사항을 하나의 통합된 번호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신속 정확한 상담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감을 더욱더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센터 번호는 1544-7755로 관광상품(1번), 마이스(MICE)(2번), 도시락 예약(3번), 고객의 소리(4번), 제휴(5번), 기타문의(6번)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민기자

"中·대만 가는 'LCC 하늘길' 열어달라"

근거리 국제선 우선 배분 제주항공, 국토부에 건의

제주항공이 근거리 국가 항공 자유화 및 근거리 국제항공운수권 우선 배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문 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5개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오갔던 사항들을 구체화해 작성됐다.

제주항공은 건의문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항공 운수권 제한으로 취항이 자유롭지 않고 대형 항공사 중심으로 노선이 짜여져 있다"며 "항공 자유화된 동남아 지역은 경쟁이 심해 중국·홍콩·대만 노선의 취항 확대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은 "도쿄 하네다를 제외한 한·일 노선은 항공 자유화가 이뤄졌지만 야간 운항이 불가능하고 항공 자유화가 된 동남아시아 지역은 공급 증대로 경쟁이 심화됐다"며 건의배경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한국과 중국 간 항공 자유화가 이뤄지거나 LCC에 새로운 운수권이 부여되면 인천은 물론 제주와 부산·대구 등 지역 공항에서 경쟁력 있는 다수의 노선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항공사의 중편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참여로 항공 여행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은 김포 기점 국제선 확대도 같이 요청하며 "인천공항은 환승 수요 유지 등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 기존 항공사 중심으로, 김포공항는 지점 간 단순 이동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 자유화 확대 또는 운수권 LCC 우선배분이 이뤄지면 소비자의 혜택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선기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고품격 리모델링 끝 재개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19일 재개관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건축 및 설계 전문회사인 록웰 그룹(Rockwell Group)과 일본의 권위 있는 인테리어 기업 일리아(Ilya Corporation)가 참여했다.

'서양적인 웅장함 및 동양적인 우아함'이란 콘셉트를 호텔의 모든 공간에 반영했다.

또 호텔은 한국 전통 문양을 살리면서 객실은 서양적인 모더니즘 요소를 가미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신선함을 더했다.

/송재용기자

늑대의 BB크림 사용설명서

올봄 꽃피부男 되려면

각질제거·보습관리 후 콩알크기로 펴 발라야

외모를 열심히 가꾸는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BB크림을 애용하는 남성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각질이 일어난 피부에 BB크림을 무작정 바르면 들뜨고 밀려 오히려 피부가 거칠어 보일 수 있다. 올봄 화사한 피부미남이 되려면 세안 단계부터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먼저 따뜻한 물로 모공을 충분히 열어준 다음 필링젤이나 스크럽으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한다. 이런 과정이 귀찮을 땐 작은 알갱이가 들어간 클렌저를 사용하면 좋다. 세안 후에는 보습 스킨을 발라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에센스 로션을 발라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한다.

매끈한 피부를 연출하겠다고 BB크림을 욕심내서 바르면 안 된다.

깨끗한 손에 BB크림을 콩알 크기로 덜어 손가락 끝으로 양 볼·이마·코끝·턱에 분배한 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 바른다. 이때 세게 문지르지 않고 얇게 펴 바르고 두드려 마무리한다.

랩 시리즈 관계자는 "평소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스킨·로션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는 게 중요하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가벼운 BB크림으로 자연스럽게 어드름 자국과 모공 등 피부 결점을 가려주면 매끈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학사모 벗더라도 볼륨 살아있게!

졸업식 헤어 스타일링
머리 길이별 연출요령

졸업 시즌이나 학사모를 써야 하는 졸업식 당일에는 어느 때보다 헤어 스타일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특히 평생 남을 기념사진을 보고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얼굴은 물론 학사모에 잘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을 연출해야 한다.

'헤어 스타일링'(스타일북스 펴냄)의 저자이자 고원 뷰티숍 김선미 헤어디자이너가 졸업식 헤어 스타일 [illegible]

◆ 긴머리엔 볼륨 업 웨이브

긴 머리의 아랫부분에만 웨이브를 넣어 볼륨감과 함께 우아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로 웨이브를 너무 풍성하게 넣으면 지나치게 드레스업한 것처럼 보이므로 주의한다. 옆머리의 중간부터 아이론으로 웨이브를 넣어 끝에서 다시 한번 말아 마무리한다. 손가락으로 살짝 빗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다.

◆ 단발머리엔 C컬 드라이

단발 머리의 가장 기본적인 드라이 방법이다. 볼륨을 살리려면 롤 브러시와 드라이어를 뿌리 쪽부터 대고 드라이한 다음 머리카락 끝까지 굴려주면 된다. 마무리는 헤어 왁스나 스프레이보다는 에센스로 하는 게 적당하다.

◆ 쇼트 헤어엔 베이비 웨이브 컬

쇼트 헤어는 시크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매력이지만 특별한 날에는 귀엽고 발랄해 보이는 베이비 펌 스타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모발 전체에 풍성한 볼륨과 웨이브를 넣은 다음 컬 하나하나를 살려주면 된다. 헤어 왁스에 에센스 한 방울 [illegible]

황금돼지 1학년은 '오렌지군·핑크걸'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오렌지와 핑크 컬러에 푹 빠졌다.

드림스코의 아동복 브랜드 컬리수는 올해 들어 오렌지 색상 남아용 아동복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드림스코는 "지난해 성인복 중심으로 유행한 비비드 컬러가 올해 아동복 패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오렌지 색상은 화사하고 생동감이 있어 주변에 밝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자아이들은 핑크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용 핑크 색상 아동복 판매는 25% 늘어났다.

핑크는 색 농도에 따라 베이비핑크부터 핫핑크까지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 여자아이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혜민기자

[illegible] 스프링 메이크업 룩 화보를 공개했다. 프리티 인 핑크 룩 콘셉트로 촬영된 이번 화보에서 이하늬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헤어와 다양한 컬러 [illegible] 입술 화장으로 화사한 봄의 감성을 전했다. /시세이도 제공

행주산성 옆 '맛의 아성'

레스토랑 '향주' 가봤나요 메뉴도 주변 풍광도 감탄

합리적 가격의 맛있는 요리와 분위기까지 고루 갖춘 레스토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최근 행주산성 근처의 떠오르는 맛집으로 알려진 '향주'에는 4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호텔 출신 셰프들의 일품 요리로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또 창밖 너머로 보이는 행주대교와 한강, 개화산 등 주변 절경은 손님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곳의 대표메뉴는 공천장어·오리 토종닭 등으로 정갈한 맛의 한정식과 깊은 맛을 낸 전골류 음식의 소비는 고객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킨다. 또 개별 공간도 마련돼 있어 각종 연회 및 행사도 가능하다.

이상준 향주 대표는 "향주는 여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 130여대의 주차공간을 갖춰 많은 고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약 및 문의 031-970-1066 /정지은기자

코리아! 파이팅! 응원할 맛 나는 '금빛 야식'

강강술래 응원세트 할인

러시아에서 들려온 금빛 낭보에 응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의 응원용 야식 먹거리 매출도 50% 이상 껑충 뛰어올랐다.

강강술래는 오는 23일까지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칠링한우떡갈비(360gX1박스)와 흑염자한돈너비아니(360gX2박스)로 구성된 '코리아세트'는 2만8300원, 등등심돈가스(720gX1박스)와 모짜렐라돈가스(720gX2박스)로 구성된 '파이팅세트'는 3만6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 중이다. 종합순위 10위 달성을 기원하는 '텐텐세트'(갈비맛 최고기육포 10봉)도 3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초·중·고교 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로 여행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간편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ml 10팩 30인분)는 6만4800원, 소용량 세트(350ml 10팩 20인분)는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고양 능곡농원점도 이달 28일까지 돼지양념구이(500g-1만2000원)와 한돈양념구이(500g-1만6000원) 포장 상품 1+1 행사를 벌이며 한우불고기(500g) 포장 상품도 62% 할인된 1만2000원에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하루 30분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인 도서출판 알렙의 도서도 증정한다.

'미러리스 카메라 무작정 따라하기'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처음 구입한 초보 작가를 위해 충분한 이론의 사진 잘 찍는 법을 쉽게 소개하며 '소외된 90%를 위한 비즈니스'는 세계적인 사업가이자 빈곤 퇴치운동가인 폴 폴락·말 워윅이 비즈니스가 빈곤퇴치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정지은기자

국내 최초 한일 동시 공연!
세종문화회관이 선택한 뮤지컬 〈삼총사〉

MUSICAL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2014.02.18 티켓오픈

2014.3.14 ~ 3.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metro entertainment

록밴드 넬이 최근 서교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새 앨범 '뉴튼스 애플' 발매 전 청음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재경(기타)·정재원(드럼)·김종완(보컬)·이정훈(베이스). /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절제된 보컬·밴드 사운드 반할걸요"

'중력' 시리즈 마지막 앨범 '뉴튼스 애플' 발표 록밴드 넬

록밴드 넬(김종완·이재경·이정훈·정재원)이 '그래비티 트릴로지'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 '뉴튼스 애플'(27일 발매)로 돌아왔다. 마치 장편소설이나 영화처럼 음반에도 하나의 주제 아래 이야기가 펼쳐지듯 앨범마다 부드러운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앨범은 그들이 앞서 발표한 두 장의 싱글 앨범 '홀딩 온투 그래비티', '이스케이핑 그래비티'에 이은 '중력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이다.

◆ 그들이 말하는 대중성

정규 6집 '뉴튼스 애플'의 앨범 트랙리스트는 CD1과 CD2로 나뉘어 총 21곡이 담겨 있다. CD1에는 타이틀곡 '지구가 태양을 네 번'을 비롯해 '디컴포즈', '판타지', '타인의 기억', '침묵의 역사', '그레이 존', '뉴튼스 애플', '환생의 밤', '소멸탈출', '디어 제노비즈', '선샤인' 등 11곡의 신곡이 담겼다. CD2는 '코헨 셀라', '백야', '홀딩 온투 그래비티', '블루 보이-믹스', '오션 오브 라이트', '파퓰러', '섬(세븐)', '위크 아웃' 등으로 구성됐다.

보컬 김종완은 "이번 앨범은 이전의 두 앨범을 모두 재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꿈, 절망, 사랑의 감정이 모두 담겨있는 앨범이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지구가 태양을 네 번'은 경쾌한 리듬과 귀에 박히는 가사가 매력적이었지만 시작과 끝의 고저 차가 크지 않고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도드라지지 않아 대중적인 느낌은 떨어진다.

"대중성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중성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대중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중성보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타이틀곡은 음악적으로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운드라는 점에서 타이틀곡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었죠. 또 이 노래를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했어요.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이 노래가 길거리에서 들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죠."(김종완)

> 꿈·절망·사랑 담은 앨범
> 기타·드럼 앙상블 돋보여
> 가사도 귀에 쏙 박힐겁니다

기타 이재경은 "대중성은 지금까지 나왔던 음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다. 밴드 음악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 결성 15년… 새로운 시도

이번 앨범은 보컬의 목소리보다 드럼과 기타, 베이스 등 밴드의 하모니가 돋보인다.

"밴드 사운드를 부각해보자고 멤버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전자 음악의 요소와 밴드적 요소를 많이 섞었는데 이번에는 베이직한 느낌으로 들어가자는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보컬이 안으로 들어가고 베이스, 기타, 드럼 소리가 잘 들리는 음반을 만들려고 했죠."(김종완)

특히 기타의 사운드는 듣는 이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다소 거친 성향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피아노가 연상될 정도로 맑게 울리기도 한다.

기타리스트 이재경은 "무슨 소리든 기타로 표현하고픈 마음이 있다. 맑은소리를 좋아해서 톤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이번에 기타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1999년 밴드를 결성해 올해 1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넬이 새로운 시도와 음악적 영감, 더불어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길 거부하는 만큼 이들의 음악성이 대중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기대된다.

/열린문기자 [illegible] 디자인/박은지

미시족 배우 세련 벗고 '일상'을 입다

김희선 드라마서 털털 매력 · 이민정 억척녀 연기, 이보영 어머니 열연

미시 여배우들이 세련된 모습을 벗고 시청자들에게 편하게 다가선다.

먼저 김희선은 22일 첫 방송될 KBS2 '참 좋은 시절'에 출연해 오래 된 주말극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미인으로 그동안 주로 미니시리즈에 출연했던 그는 가족이 다 함께 보는 시간대인 주말극을 통해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극에서도 기존의 도시적인 이미지를 벗고 변신을 꾀한다. 표독한 성격이지만 돈을 빌어낼 때는 억척같이 벌어내는 생계형 대부업자 차해원 역을 맡아 털털한 모습을 선보인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사투리 연기에도 도전한다.

'여신' 미모로 뭇 남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민정은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돌아온다. 이병헌과의 결혼 후 첫 복귀작으로 26일 첫 방영 예정인 MBC 수목극 '앙큼한 돌싱녀'를 택했다.

벤처 사업가로 성공해 돌아온 전남편을 다시 유혹하는 나애라 역을 맡은 그는 극 초반 포장마차에서 취객들과 몸싸움을 하는가 하면 고깃집에서 불판을 갈고 떡집에서 떡을 써는 등 먹고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활 연기를 펼친다.

지난해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정의로운 변호사 역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이보영 역시 지성과의 결혼 후 첫 복귀작으로 나온다. 3월 시작될 SBS 새 월화극 '신의 선물 – 14일'을 택해 모성애 강한 어머니로 연기 변신을 한다.

유괴된 딸을 살리기 위해 2주 전으로 시간 이동을 해 납치범과 목숨을 건 사투를 펼치는 김수현 역을 맡았다. 스릴러 드라마에 첫 도전하는 데다 어머니 역은 처음 맡아 관심을 모은다.

/박한준기자 jak0427@metroseoul.co.kr

참 좋은 시절'의 김희선. /3HW COM 제공 앙큼한 돌싱녀'의 이민정. /3HW COM 제공 '신의 선물 – 14일'의 이보영. /SBS 제공

오렌지캬라멜 '까탈레나'가 뭐지?

1년 5개월만에 컴백 앞두고 티저 이미지 선봬

'차별화된 콘셉트로 아이돌 그룹 중 가장 성공한 유닛으로 평가받는 오렌지캬라멜(사진)이 컴백한다.

애프터스쿨의 멤버 나나·레이나·리지로 구성된 오렌지캬라멜은 1년5개월 만의 컴백을 앞두고 19일 다리만 찍힌 첫 번째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도트 무늬가 가득한 치마와 스타킹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각선미를 자랑하는 여성의 다리가 사진에 실렸다.

이 사진에는 '오렌지캬라멜 까탈레나'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가 적혀있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오렌지캬라멜은 19일부터 사흘간 3장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0년 데뷔곡 '마법소녀'를 시작으로 '아잉' '방콕시티' '샹하이 로맨스' '립스틱' 등 발표하는 곡들을 모두 히트시켰다.

한편 애프터스쿨은 작곡가 용감한형제의 데뷔 10주년 앨범의 세 번째 싱글 '원주민'을 불러 21일 온라인에 발표한다.

/유순호기자 suno@

2NE1 음원공개 24→26일… 왜?

씨엘 생일기념 위한 것

26일 정규 2집 '크러시'를 발표하는 걸그룹 2NE1(사진)이 더블 타이틀곡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활동한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19일 YG라이프 블로그에 "'컴백홈'과 '너 아님 안돼' 등 2곡을 공동 타이틀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 연상될 텐데 2NE1의 신곡은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가사 내용과 멜로디 위주로 전개되는 전혀 다른 곡"이라고 설명했다.

'컴백홈'은 R&B와 레게 힙합 요소가 골고루 섞여있는 크로스오버 장르의 곡으로, YG의 메인 프로듀서인 테디와 다른 소속 프로듀서들이 공동으로 작업했다. '너 아님 안돼'는 테디와 PK의 공동 작품으로 박봄의 메인 파트 멜로디가 인상적인 빠른 템포의 곡이다.

는 24일 밤 12시로 예정됐던 온라인 음원 공개 일정을 26일 밤 12시로 변경했다. 이번 앨범 수록곡 중 3곡의 작사·작곡을 맡은 씨엘의 생일이 26일이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YG는 설명했다. 오프라인 앨범은 다음달 7일 출시된다.

2NE1은 두 가지 버전의 '컴백홈'과 '너 아님 안돼' '해피' 등 총 4편의 뮤직비디오를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 1~2일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월드투어에서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

/유순호기자

쿨 유리 실루엣 돋보이는 웨딩화보

22일 결혼식을 올리는 쿨의 유리(사진 오른쪽)가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아이웨딩은 "차분한 분위기에 세련미가 돋보이는 콘셉트로 촬영을 진행했다. 실루엣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드레스를 택해 솜 딱 떨어지는 웨딩드레스 자태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전했다. 다섯살 연하의 예비신랑 사모(왼쪽)씨는 골프선수로 현재 미국에서 골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결혼식 주례는 예비 신랑의 아버지, 사회는 방송인 정준하와 유재석, 축가는 가수 백지영, 이정, 문명진이 맡았다. /유순호기자

엑소 日 공연 1회 추가 현지팬 10만명 만난다

대세' 엑소(사진)가 4월 일본에서 개최하는 첫 행사를 10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4월 12~13일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엑소 그리팅 파티 인 재팬'을 개최하려던 엑소는 현지 팬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1일 1회 공연을 추가해 3일간 5회에 걸쳐 10만 명의 팬들과 만난다.

엑소는 일본에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았음에도 이번 행사를 관람하기 위한 현지 팬들의 응모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다.

엑소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차례로 열린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2013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등 6개 국내 시상식의 대상을 모두 휩쓸었다. /유순호기자

'어벤져스' 속편 한국 촬영 '레디고'

국내에서 7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어벤져스'의 속편이 한국에서 촬영된다.

마블 스튜디오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주요 장면들이 한국에서 촬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블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어벤져스'의 프로듀서인 케빈 파이기 대표는 "최첨단 하이테크와 아름다운 경관, 조현대식 건축물이 공존하는 한국은 대규모 블록버스터를 촬영하기에 최적의 로케이션"이라고 밝혔다.

영화는 국내 외에도 영국 런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이탈리아의 아오스타밸리 등에서도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벤져스' 시리즈 1편의 조스 웨던 감독이 다시 연출을 맡았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사진), 크리스 햄스워스,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반스, 스칼릿 조핸슨 등 1편에 출연한 할리우드 스타들도 총출동했다.

'어벤져스'는 2012년 개봉 당시 세계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 현재까지 역대 최고 흥행 영화 3위에 오른 작품이다. 속편은 내년 4월 국내 개봉 예정. /기다현기자 tak0427@

이연걸·양조위… 중화권 스타 총출동 中 액션무협 대작 '영웅' 포스터 공개

리롄제(이연걸)·량차오웨이(양조위) 등 중화권 스타들이 총출동한 중국 액션무협 대작 '영웅: 천하의 시작'(사진)의 감독판이 다음달 13일 개봉을 앞두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계적인 거장 장이머우(장예모)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영화는 2002년 상영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10분 14초에 컷이 추가돼 장 감독이 구현하고자 했던 액션의 리듬감을 십분 살린 리마스터링 감독판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둔 진나라 왕을 암살하려는 무술 고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액션스타들의 주옥 같은 결투 장면과 6500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된 거대한 액션신 등을 더욱 선명한 화질과 색감으로 만나볼 수 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다섯 영웅으로 분한 리롄제·량차오웨이·전쯔단(견자단)·장만위(장만옥)·장쯔이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자아낸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휘점 세트장이 탄생시킨 웅장한 배경도 눈길을 끈다.

2002년 개봉 당시 아시아 영화사상 최대의 제작비가 투입돼 전 세계 1억70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당시 국내에서도 중국 영화 중 역대 관객 수 2위에 랭크됐다. /박정현기자

경기민요·춤 한 무대에… 명창 김점순 22일 공연

명창 김점순(사진)이 2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제5회 김점순소리연구회 발표 공연 '경기민요 옷을 입다 – 첫 번째 이야기: 경기민요 춤을 추다'를 마련한다.

경기민요와 춤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국악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세 편으로 기획된 공연 중 첫 번째 무대다.

'한오백년', '긴아리랑', '노랫가락', '청춘가', '대풍가', '잠자타령' 등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노래들과 살풀이와 승무 등 전통 춤, 그리고 비보이의 현란한 춤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진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김점순은 지난해 열린 제19회 경기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현재 강동구와 중구 문화원에서 올바른 경기민요 계승,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문의 010-4042-0744 /박정현기자

짙은 오락성, 긴박한 전개

여진인 여배우 자살 배후 파헤치는 매니저 이야기 – '또다른 갑의 횡포' 연상

film review

/서승희기자 ...

■찌라시: 위험한 소문

"비밀이 진실을 잊는 순간 그것은 찌라시가 된다."

증권가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 담긴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기업을 포함한 여의관계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먼저 접한 후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일 개봉할 범죄추적극 '찌라시: 위험한 소문'(이하 찌라시·사진)은 사랑하는 연인이자 소속 여배우가 찌라시에 거론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매니저 우곤(김강우)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것이 이 영화의 표면적인 줄거리다.

하지만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연예인과 매니저, 그리고 정치인과의 가십거리 그 이상이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최초 유포자를 찾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마주하는 거대한 세력과의 대결 구도와 그 횡포가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 '갑의 횡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우곤이 진실을 찾아갈수록 그 진실을 덮고 싶은 '슈퍼 갑'으로부터 무자비적인 폭력을 당한다. 우곤의 손가락이 무시무시한 협박과 함께 연거푸 부러지고 그것도 모자라 실컷 얻어맞은 후 공사 현장에 버려지는 모습은 일순간 소름이 돋는다.

국내 대표 대기업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을 얻어 사망한 고 황유미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오버랩된다.

물론 다른 점은 많다. '또 하나의 약속'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 '찌라시'는 오락적인 요소가 강한 허구다. 2010년 '내 깡패 같은 애인'으로 변변히 취업에 실패하는 지방대 졸업생과 동네 삼류 깡패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김광식 감독이 찌라시의 세계를 탄탄한 연출력과 빈틈없는 위재력으로 스크린에 구현했다. 15세 이상 관람가.

'파이널 레시피' 헨리의 화려한 유혹

주인공 세프 마크로 출연 – '진짜 사나이' 이미지와 상반된 매력

군대무식자 헨리의 반전 매력을 볼 수 있는 영화 '파이널 레시피'가 국내외 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파이널 레시피'(사진)는 CJ E&M이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배우인 양쯔충(양자경)이 주연하고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감진아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으로는 슈퍼주니어-M의 멤버 헨리가 출연해 주목받고 있다.

16일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 처음 출연해 단번에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했고, '군대무식자'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얻으며 샘 해밍턴을 능가할 외국인 예능 대세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헨리의 연기 데뷔작이자 최근 해외 영화계에서 연이어 찬사를 받고 있는 '파이널 레시피'로 이어지고 있다. 할아버지의 레스토랑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 요리사들이 참가하는 요리대회 '파이널 레시피'에 도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에서 헨리는 남자 주인공인 어린 세프 마크로 출연한다.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하와이 국제영화제, 심와운루 국제영화제에 이어 최근 폐막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돼 상여 분간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다. '파이널 레시피'는 아시아 요리라는 눈길을 끄는 소재, 가족애를 다룬 따뜻한 스토리가 세계인들을 사로잡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헨리는 이 영화 전반을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해냈다.

제작진은 "K-팝 스타인 헨리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작곡·노래·춤 등 다양한 끼를 갖추고 있어 배우로서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특히 요리 트레이닝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엔딩 OST를 직접 부르는 등 올색조 매력을 뽐냈다.

헨리는 지난해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 셀리브리티'에 출연해 영화 준비를 하며 익힌 요리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파이널 레시피'는 올해 개봉을 목표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no@

metrosochi

오늘밤 우아·강렬… 퀸연아 치명적 유혹

21일 0시 프리스케이팅 출격…7개 점프 '필살기' 감동 선사

피겨여왕 김연아가 18일 오전(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드레스리허설에서 쇼트프로그램을 연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설이 될 '피겨 여왕'의 마지막 무대가 펼쳐진다.

김연아(24)가 21일 자정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리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현역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여왕의 두 번째 대관식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놓칠 수 없는 무대로 김연아는 물오른 감성 연기와 완벽한 점프로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프리스케이팅의 배경 음악은 쇼트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그리움이 주제다. '리베르 탱고'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탱고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아버지를 여읜 뒤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곡이다.

쇼트프로그램 배경 음악이 잔잔한 첼로 선율이 주를 이뤘다면 프리스케이팅은 오묘한 음색의 반도네온을 중심으로 작곡자의 슬픈 감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역동적인 노력이 느껴진다. 김연아는 명곡의 주제인 그리움을 모티브로 환상의 연기를 펼친다.

4분 10초 동안 소화할 과제는 점프 7개, 스핀 3개, 스텝 시퀀스 1개, 코레오 시퀀스 1개 등 총 12개다.

쇼트프로그램과 같이 김연아는 필살기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으로 경쟁자들을 기선제압한다. 기본점만 10.10점에 달하는 고난도 기술로, 김연아는 높은 수행점수(GOE)까지 붙여 초반부터 높은 점수를 쌓아놓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펼친다.

연이어 트리플 플립과 트리플 살코-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잇따라 시도한다. 세 가지 점프를 뛰어낸 뒤에는 플라잉 카멜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에 이어 스텝 시퀀스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김연아는 점프에 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에 나머지 4개의 점프를 배치한다. 트리플 러츠와 더블 악셀에 이어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로 후반부를 시작한다.

김연아는 트리플 살코 점프와 레이백 스핀으로 막판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 코레오 시퀀스, 더블 악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시퀀스로 4분10초의 연기를 마무리한다.

/장소희기자 sunn@metroseoul.co.kr

제작시간 관계상 오늘 새벽 열린 김연아 선수의 쇼트프로그램 경기 결과는 차면에 싣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메달 따러가서 숙제하는 여고생 스케이터

소치올림픽 이모저모

소치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학교 숙제를 하는 여고생 선수가 있어 화제다.

미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대표 폴리나 에드먼즈(16·사진)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미티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19일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를 코앞에 두고 학교 숙제를 먼저 했다.

에드먼즈는 "선생님이 올림피에서 스페인어를 하는 선수를 인터뷰해오라고 하셔서 스페인의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하비에르 페르난데스에게 소치에서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등을 스페인어로 질문했다"면서 "앞으로 수학, 영어, 과학 숙제도 기다리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에드먼즈의 코치 데이비드 글린은 "에드먼즈의 가족은 아이가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받는지와 상관없이 학교에 꼭 나가도록 하고 있다"며 "때문에 에드먼즈는 대회에 출전해서도 숙제를 하는 일에 익숙하다"고 설명했다.

에드먼즈는 지난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우승한 유망주다.

스노보더 부러진 발목으로 완주

○…미국 스노보더가 발목이 부러진 고통을 참고 경기를 마치는 투혼을 펼쳤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 준결승에 나선 트레버 제이콥은 경기 중 점프를 뛰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를 들었고, 결국 4위로 마쳐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남은 6~12위 결정전을 뛰었다. 예선에서 3위를 차지한 그는 결국 최종 9위로 대회를 마쳤다.

제이콥은 경기 후 인터뷰를 할 때까지도 발목의 아픔이 참을 만하다고 했으나 "15분 안에 고통이 최고치에 다다를 것 같다"며 뒤늦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박진영기자 pjy0427@

국기별 메달 순위 <19일 오후 10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8	4	7
2	독일	8	3	4
3	미국	7	4	10
4	러시아	6	6	7
5	네덜란드	6	6	8
6	스위스	6	3	1
7	벨라루스	5	0	1
16	대한민국	2	1	1

김광진 "이제 시작일 뿐" 김광진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파크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스키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26명 중 25위로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 종목 최초로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경험을 쌓으며 4년 뒤 [illegible] 대회를 기약했다. /AP 연합뉴스

소치 하이라이트 20일 한국 중계 (한국시간)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작	한국 선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24시	김연아 박소연 김해진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하프파이프	23시30분	박희진

박주영 마지막 테스트

홍명보호 그리스전 명단 발표

13개월만에 대표팀 유니폼 해외파 집합 · 차두리 발탁 월드컵 엔트리 최종 시험대

홍명보(작은 사진) 축구대표팀 감독이 13개월간 대표팀을 떠나있던 박주영(왓포드)을 다시 불러들였다.

홍 감독은 1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그리스와의 평가전(다음달 6일 오전 2시)에 나설 24명의 대표선수를 발표하면서 최전방 공격수로 박주영(큰 사진)의 이름을 올렸다. 박주영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것은 지난해 2월 6일 영국 런던에서 치러진 크로아티아전이 마지막이다.

박주영의 발탁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홍 감독은 해결되지 않는 대표팀의 골 결정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박주영 카드'를 꺼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FC에서 벤치 워머 생활을 해오던 박주영은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홍 감독의 권유에 따라 출전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잉글랜드 2부리그 왓포드로 옮겼다. 여전히 벤치에 머물고 있지만 이전 팀에서보다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그리스 평가전으로 복귀할 박주영은 K리그를 대표하는 김신욱(울산 현대) 이근호(상주 상무) 지동원(FC 아우크스부르크)과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날 발표한 대표선수 명단에는 기성용(선덜랜드 AFC) 이청용(볼턴 원더러스 FC) 지동원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손흥민(바이엘 레버쿠젠) 김보경(카디프시티) 구자철·박주호(마인츠) 등 유럽파를 비롯해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FC) 곽태휘(알 힐랄 FC) 남태희(레퀴야) 한국영(가시와 레이솔) 황석호(산프레체 히로시마)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등 아시아권에서 활약하는 선수까지 해외파가 모두 포함됐다.

국내 선수로는 이근호 김신욱 이용(울산) 정성룡(수원 삼성 블루윙즈) 차두리(서울) 등 6명이고, 최근 중국리그로 옮긴 하대성(베이징 궈안)과 박종우(광저우 부리)도 이름을 올렸다.

차두리는 2011년 11월 레바논과의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전에 나선 이후 2년3개월 만에 국가대표에 합류해 오른쪽 측면 수비수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계리의 좌우 날개 공격자원 이명은 전원 배제되도 꾸려진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ML서 기죽지 않을 것"

볼티모어 입단 윤석민 "빨리 공 던지고 싶어"

윤석민(28·오른쪽)이 기다리던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입었다.

윤석민은 19일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의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스프링캠프에서 입단식을 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

1994년 박찬호 이후 15번째 한국인 메이저리거이자, 류현진(27·LA 다저스)에 이어 한국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

그는 "시즌이 시작해 빨리 던졌으면 좋겠다. 최고 리그이니까 한국보다 타자가 잘 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기죽지 않고 내 공을 던지려고 노력하겠다"며 "지금은 마운드에 서는 것, 그리고 계속 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열한 선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윤석민은 "보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잘해서 감독님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각오를 다졌다.

댄 듀켓 단장은 "윤석민은 제구력이 좋고 경험이 풍부한 선수"라며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감독이 결정하겠지만 다방면에 걸쳐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3년간 최대 575만 달러(약 61억원), 옵션과 보너스 포함 최대 1325만 달러(약 140억원)를 받기로 한 윤석민은 "한국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내 머릿속에는 메이저리그 가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볼티모어 지역지 볼티모어선은 이날 윤석민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볼티모어가 최근 오른손 선발 투수 우발도 히메네스를 영입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언론은 "관계자로부터 윤석민이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에서 선발로 던지며 미국 야구에 적응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윤석민의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은 2015년부터 발효된다"고 전했다.

벅 쇼월터 볼티모어 감독은 "아직 윤석민의 보직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훈련 과정을 지켜본 뒤 윤석민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순학기자

텍사스 마케팅 1순위는 추신수

추신수(32)가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새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존 다니엘스 레인저스 단장은 19일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올해 우리 팀의 1차 목표는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이라며 "추신수는 타격과 공격이 좋고 출루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 팀의 득점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추신수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다니엘스 단장은 또 "텍사스에 한국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올 시즌 많은 한국인들이 경기장에 오도록 준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레인저스 구단은 올해 홈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이벤트 데이의 첫 선수로 추신수를 선정해 구단의 간판으로 내세웠다.

마케팅 이벤트는 레인저스의 정규리그 일정을 담은 작은 달력을 배포하는 일종의 사은행사다.

구단은 또 오는 4월 16일 열리는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 때 14세 이상 팬을 상대로 추신수의 등번호 17번이 박힌 티셔츠를 나눠줄 예정이다.

텍사스 구단 관계자는 "티셔츠뿐만 아니라 추신수의 바블헤드(메이저리그 팬에게 인기가 높은 고개를 까딱이는 인형)도 제작해 9월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팀 스프링캠프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추신수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총액 1억3000만 달러(약 1371억원)에 계약을 맺어 레인저스맨으로 새 출발 한다. 레인저스 구단은 오는 20일부터 전 선수가 참가하는 전체 훈련을 시작한다. 28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시범경기를 치르고 다음달 30일까지 시범경기를 진행한다. /박미선기자 al we0203@

헤인즈 '더블더블'… SK 단독 선두로

서울 SK가 5연승을 내달리며 단독 선두에 올랐다.

SK는 19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고양 오리온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70-62로 이겼다. 애런 헤인즈가 29점, 12리바운드로 팀 승리에 크게 공헌했다. 이번 경기로 34승13패가 된 SK는 공동 1위였던 울산 모비스(33승13패)를 2위로 밀어내고 단독 1위를 차지했다.

근산에서는 창원 LG가 전주 KCC를 78-67로 이기고 6연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33승14패로 2위 모비스를 0.5경기 차로 추격했다. /이도희기자 tak0427@

프로농구 전적 19일

오리온스	7	21	22	12	62
SK	16	15	20	19	70
KCC	27	10	18	12	67
LG	15	28	15	20	78
하나외환	15	20	20	17	72
국민은행	25	15	21	17	78

프로배구 전적 19일

도로공사	0	3	기업은행
LIG손보	0	3	현대캐피탈

www.1588-2089.com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안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사업장 방문교육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드립니다.

- 교육비용, 강사비용 전액 무료!
- 일정 : 2014.1.20.(월)~ 연중
- 필수 :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 선택 : 성희롱 예방교육 or 최신 노동법 이슈

자율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장에서 스스로 고용차별 여부를 진단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컨설팅 해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 신청 : www.1588-2089.com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문의 : 전국어디서나 ☎1588-2089!

비정규직 차별!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상의하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